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깔박다시, 알타이공화국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깔박다시에는 중요한 암각화가 많다. 특히, 샤먼(제사장)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샤먼을 나타내는 그림이 많기도 하지만, 크기도 크고, 독특한 그림도 몇 점 있다. 더군다나, 20여명의 제사장이 한 장소에 등장하는 곳은 아마, 전 세계에서 여기가 유일할 것이다. 대개의 샤먼은 사람들의 안녕과 복을 빌기 위해, 두 팔 벌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샤먼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샤먼들을 보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샤먼은 화려한 복장의 옷을 입고, 대개는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 분위기가 절정에 오르면 매우 격렬하게 춤을 추기도 하고, 독특한 소리를 지르거나, 하늘의 소리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샤먼이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지 못하면, 진실을 전달하지 못한다. 중생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사념(私念)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을 의지하는 마음과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해야만, 진실의 목소리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치렁치렁 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샤먼의 머리는 있는 듯, 없는 듯, 소략하게 그렸다. 하늘을 향하고, 중생을 향한 깊은 뜻으로 읽고 싶다.



제사장

비는 사람이다

춤추는 사람이다

온갖 목숨들을 위해 내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다

텅 빈 마음으로 세상 잘되라고 춤추는 사람이다

하늘 닮은 옷을 입어 하늘을 감동시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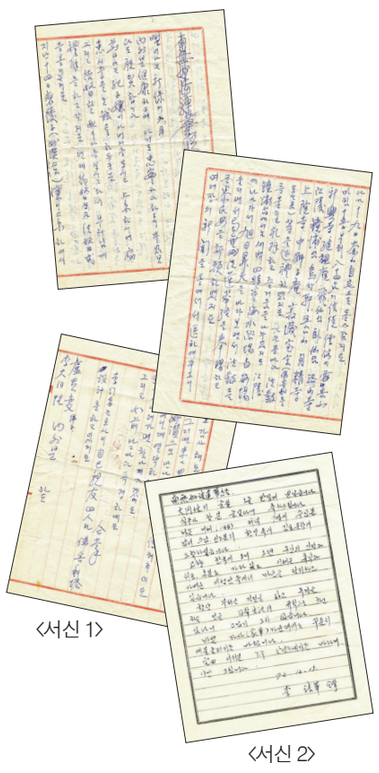
땅 만큼 넓은 옷으로 땅을 울리지만

중생 향한 간절함에 나는 끝내 없는 사람이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⑬ 이법화 스님

"스님 원 못 들어드려 죄송합니다"



〈서신 1〉

〈서신 2〉

〈서신 1〉
南無妙法蓮華經

뻗어나는 신록의 6월. 내외분 건강하오며 아기도 충실하다 하오니 무엇보다도 축하합니다. 전일에는 공자양이 아버지를 모시고 상경하시여 병환 시중을 정성으로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할 배우자를 모시고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갔지요. 언제 약혼 또는 결혼식을 올리는지요? 지난 14일 배능자(묘찬 스님 소개) 양이 상경하였다가 19일 부산 자택으로 돌아갔지요. 마침 15일부터 80명의 신도승속이 설악산 신흥사 계조암 비선대 와선대 낙산사 강릉 경포대 오죽헌 월정사 상원사 중사자암 적멸보궁(불사리를 모신 곳) 등을 순례하였지요. 가는 곳마다 법고를 울리고 예배하고 즐거움을 나누었지요. 강릉 경포대에서도 새벽 4시 반 해수욕장 백사장에 나가서 욱일승천을 바라보면서 〈나무묘법연화경〉을 봉창하고 국태민안을 소원하였지요. 여러 장의 신문을 오려서 부송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해요. 수고가 많았어요. 그러면 내내 안녕하시기를. 혹시 묘찬 스님을 만나시거든 안부 전해주세요. 명희 어머니께도 연락하세요. 다음에 내려가면 찾아가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날마다 독경하세요. 합장.

노재섭 불자 이대원성 내외분 앞. 71년 6월 20일. 이법화 합장



1967년 이법화 스님(오른쪽)과 대원성 보살.

〈서신 2〉
南無妙法蓮華經

대원성의 글을 오늘 반갑게 받았습니다. 식구가 한 분 늘었다니 축하드립니다. 나는 어제 14일 저녁 수 십분 남녀스님 신도분의 환영 속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고향 한국에 오니 오랫동안의 긴장과 피로 흥분도 가라앉고 이제는 휴식과 가벼운 여행담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 경전을 읽고 독경을 하는 것을 일상생활의 규칙으로 하고 있다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바쁜 가사 가운데도 꾸준히 예불 올리기를 바랍니다. 댁내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를 바라며 이만 그칩니다. 72년 12월 15일 이법화 합장

대한불교영산법화종의 개창조이신 이법화 스님은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뵙기 시작한 인연이다. 스님은 27세에 〈법화경〉에 귀의해 오랜 세월 〈법화경〉을 널리 알리는 원력으로 사셨다. 그래서 나에게도 법화종도가 되어주길 바라셨다. 나 역시 평소에 〈법화경〉을 애송했지만 이미 조계종에 이름을 적고 난 후라서 스님의 원을 들어드리지는 못했다. 스님은 아쉬우셨던지 한 동안 뵐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비치곤 하셨다. 끝내 내가 법화종도로 이름을 옮기지 않았지만 스님과의 인연은 달라지지 않았다. 스님과의 인연은 종단이나 종파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스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매달 이웃의 도반들을 모아 부산에서 법회도 열어드리며 스님의 인연을 이어갔다.

스님을 뵐 수 없는 지금 가끔 스님의 인연을 떠올릴 때면 아쉬운 마음이 일어난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했지만 스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스님이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진다. "스님, 스님 원 들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신 1〉의 묘찬 스님은 진주 응석사 비구니스님으로 평생 〈법화경〉만 번역하시고 기도하신 스님이다. 아버지 약방에 오셨던 스님 중에 유일한 비구니스님이다. 〈서신 2〉는 인도에 다녀오신 후에 보내주신 서신이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